

農村改良住宅의 增築에 따른 附屬舍 空間의 變化에 관한 研究

- 강원도 삼척해안지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patial Transformations of Accessory Building by Extension of Existing Modern Farm Houses

- Focused on Samchok Seashore Area of Kangwon Province -

최 장 순* 최 찬 환**
Choi Jangsoon Choi Chanhwan

Abstract

When modern farm houses were built, they were made up of only residential parts. So that many new accessory building-private residential room, toilet, warehouse, storeroom, barn, cattle pen and etc.-were made without any order around modern farm houses.

This study is aimed at grasping how the process and contents of extension of the accessory building of modern farm houses have been changed, understands and explicates the reason why accessory buildings of modern farm houses were changed and bring forward better directions about accessory building of modern farm houses at Samchok seashore area of Kangwon Province.

The way for it which be made good that the scenery of a rural district was ruined by accessory buildings distributes and develops various standard models about accessory buildings that they are becoming to modern farm houses.

키워드 : 農村改良住宅, 附屬舍, 增築, 空間 變化

Keywords : Modern Farm House, Accessory building, Extension, Spatial Transformation

1. 序論

1.1 연구배경 및 목적

농촌개량주택의 부속사는 마당에 설치된 부속건물을 통틀어 일컫는데 살림채와 대응하는 개념의 건축물로서 농촌의 생활방식 및 생산방식의 변화와 더불어 많은 변화를 겪어 왔고 현재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농촌개량주택의 부속사 종류로는 재래형태의 헛간, 마구간, 곳간과 물품보관을 위한 창고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부속사는 옥외공간의 대부분 면적을 차지하여 농촌개량주택의 정주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살림채 못지 않게 필수적인 건축공간임에도 노후화 되어 있거나 무질서하게 축조되어 있어 여전히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농촌개량주택의 부속사 건물형태 또한 가족농 중심의 재래농업에 적합했던 구조로 기계화·전문화된 농업생산방식에는 적합하지

* 정희원, 동해대학 건축과 조교수

** 정희원, 서울시립대 건축도시조경학부 교수, 공학박사

않아 비어 있거나 방치되고 있는 노후된 부속사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기계화 영농에 필요한 공간은 미비한 실정으로 부속사의 전면적인 개량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또한 앞으로 농촌개량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은 부분적인 개선이 아닌 옥내외 공간의 종합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기에 농촌개량주택의 부속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의 생활 및 생산 방식의 변화에 대응하여 자생적인 변모를 거듭하여 온 삼척 해안마을의 농촌개량주택¹⁾의 부속사 이용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부속사 개량을 위한 방향설정과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범위에 있어서 지역적으로는 三陟市 近德面 上孟芳里 마을로, 시대적으로는 1976년에 마련된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라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비슷한 유형으로 축조된 개량주택으로, 대상건축물로는 조사가 가능한 25농촌개량주택²⁾의 부속사로 한정하였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해안지역 농촌개량주택 근대화 과정의 단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대상주택들이 축조된 이후 현재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농촌개량주택의 부속사로 한정하였다.

둘째는, 현장조사방법으로서 농촌개량주택의 부속사에 대한 실측, 관찰, 촬영, 면담을 통해 물리적 현황 파악 및 생활에 따른 공간사용방식에 대한 자료수집을 하였다. 공간사용방식은 조사표

- 1) 시멘트벽돌이나 시멘트블록으로 쌓은 組積造로 농가별로 개량한 주택과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의해 지어진 주택으로 구분(최찬환, 한국의 농촌과 도시 주거양식의 비교연구, 연세대박론, 1986, 1쪽)할 수 있으나, 본 고에서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의해 지어진 조적조 주택을 의미함.
- 2) 기존 在來式住宅으로서 양식, 구조 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개량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지붕과 벽체를 개량한 농가, 비어있거나 낮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농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에 근거한 관찰조사와 면담조사가 병행되었다.

셋째는, 농촌개량주택의 부속사 실태조사를 통하여 현재의 상태를 실측하여 당초 원형에서 변화된 부분을 찾고, 거주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변화 전후의 부속사 공간을 상호 비교 분석하고, 이에 따른 변화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3단계의 연구작업을 농촌개량주택에서 부족한 기능을 충족하기 위한 부속사 공간의 증축과정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대상 마을의 생업형태 및 농촌개량주택의 특성

2.1 立地的 特性



사진 1. 대상마을 전경사진

조사대상마을은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麻邑川 下流 북부에 위치한 해안지역으로 하구 부근에 약간의 沖積平野를 이루고 있다. 토양은 미사질 계 및 사질계이다. 동으로는 화강암질 白砂가 砂洲를 이룬 넓은 砂濱海岸을 발달시켜 孟芳海水浴場으로 이용되고 있다. 서로는 太白山脈의 子開峯에서 뻗어 내려온 산줄기 밑에 인접해 있는 해안마을이다. 마을의 가운데로 통하는 7번 국도는 해안을 따라 축을 형성하고 마을 안길도 국도에 서 분기하여 국도 축을 따라 형성되어 있다.

2.2 生業형태

1968년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이후 적의 침투로를 봉쇄할 목적으로 정부에서는 화전경작을 금하게 됨³⁾에 따라 인근 경북과 강원 내륙 산악지대의 독립농가나 小部落의 화전민들을 이 곳 상맹방리로 이주 정착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⁴⁾. 해안에 바로 인접해 있어 어업에 종사할 거주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포구와는 떨어져 있는 관계로 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는 없다.

농사보다는 밭농사 위주이며, 쌀이나 잡곡은 자급 자족적 영농⁵⁾이다. 또한 해변에 인접한 모래질 지반이어서 주요 작물은 감자, 마늘, 파, 깨, 고추, 콩 등이다.

평균경지규모는 논이 510평, 밭이 1,064평으로 밭이 논의 2배 정도이며, 합계는 1,574여평으로 0.5町步를 조금 넘는 편이다. 經營耕地規模로 보면 小農⁶⁾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 남의 땅을 빌려 짓는 소작농이고,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도 거의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耕耘機 정도여서 노동집약적인 영농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主 收入源은 농사를 지어 벌어들이는 것이지만 농한기에는 막노동을 하거나 자녀들이 직장 에 나가 벌어들이기도 하며, 거기에 곁들여 일부 농가에서는 여름 피서객을 상대로 한 果樹⁷⁾

와 畜産⁸⁾, 民泊⁹⁾을 하여 벌어들이기도 한다.

앞으로 맹방해수욕장과 초당관광지개발사업이 활성화된다면 농업과 보조적 관광업이 서로 병행될 것이다.

2.3 대상 농촌개량주택의 특성

조사대상 농촌개량주택들은 1976년에 시작된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의해 7번 국도변의 기존 재래식 농촌주택과 1968년 울진무장공비 침투사건 후에 정부의 화전정리법에 의해 1971년에 이주한 독가촌(일명 승공마을)의 블록으로 지어진 조적식 농촌주택중 희망하는 농가¹⁰⁾에 한해서 정부로부터 재정지원(5년 거치 20년 상환 : 15평은 126만원, 18평형은 156만원, 20평은 182만원)을 받아 농촌주택개량 기본도면에 의해 1978-80년도에 지어진 농가들이다¹¹⁾. 벽은 시멘트벽돌로 쌓고, 시멘트몰탈을 발라 그 위에 수성페인트를 칠하였다. 지붕형태는 박공, 합각, 모임, 슬래브지붕인데, 道路邊에 면해 남서 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농촌개량주택들은 물매가 크고 다락층이 있는 박공지붕으로, 도로와 직각으로 면해 남동향으로 배치된 농촌개량주택들은 다락층이 없는 물매가 작은 합각이나 모임지붕으로 되어 있다. 前者는 도로에서 보이는 마을의 풍경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로, 後者는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북동풍을 피하기 위한 자생적 조치로 보여진다¹²⁾. 전체 마을은 街

3) 1968년에 공포된 火田整理法을 들 수 있다.

4) 김주호씨의 말을 채록하여 정리.

5) 이 지역에서는 150평을 1마지기(새동아사전, 동아출판사, 1997, 646쪽에 의하면, 한 말의 씨앗을 뿌릴 만한 땅이라는 뜻으로 논밭의 넓이를 나타내는 단위. 대개 논은 200평, 밭은 300평을 한 마지기로 봄.)로 보며, 1단보(300평, 약10a)당 평균 쌀 산출량이 450kg 정도가 되는데, 논 평균경지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출하면 농가당 평균 9.5가마 정도의 쌀을 생산한다고 볼 수 있다.

6) 양희수, 한국농촌의 취락구조,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71, 363쪽에 의하면, 細農 0.5町步 以下, 小農 0.5~1.0町步, 中農 1.0~2.0町步, 大農 2.0町步 以上으로 분류함

7) 홍영규씨 맥으로 복숭아 100그루 정도 되는데, 판매는 주로 여름철 피서객들을 상대로 판매를 하는

데, 년 4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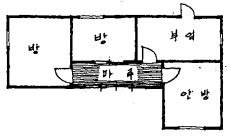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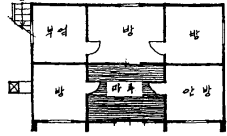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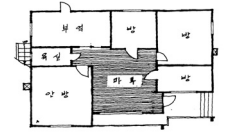

8) 소를 키우는 농가 2집, 염소를 키우는 농가 5집, 닭을 키우는 농가 7집이나 소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대부분 여름철 피서객을 상대로 매매를 하는데 그 규모가 영세함.

9) 민박을 가장 크게 운영하는 농가는 박일봉씨 맥으로 과거 축사를 개조하여 7개의 민박 방을 만들었는데, 일정하지는 않지만 년 1,5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다고 함.

10) 농업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의 집 또는 그 가족을 의미함(새국어사전, 동아출판, 1997). 따라서 본 고에서 농가란 농촌개량주택 또는 그 속에 살고있는 가족과 같은 뜻으로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표기하고자 함.(이하 같다.)

11) 마을 이장 홍영표씨의 말을 채록 정리.

표 1. 삼척 농촌개량주택 평면유형 및 형태

평형	평면유형	건물형태	가구	특징
15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에 마루 설치 · 안방이 마당 쪽으로 돌출 · 마루는 미단이문으로 출입 · 대부분 합각지붕
18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에 마루 설치 · 마루가 좁을 경우 안방이 뒤편에 위치 · 마루는 미단이문으로 출입 · 대부분 박공지붕
20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에 마루 설치 · 전면에 발코니 및 계단 설치 · 내부에 화장실(욕실)설치 · 마루는 밖여단이문으로 출입 · 대부분 슬래브지붕

路에 면하여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북동풍을 등진 남서향 집들(15/30, 50%)¹³⁾과 국도와 직각방향인 남동향 집들(15/30, 50%)로 구성되어 있다.

배치형태에 있어, 앞마당으로의 進出入을 위한 出入口는 한 두 개소에 이른다. 마을 안길에서 들어오는 進入口와 이웃간 서로 통하도록 되어 있는 연결통로가 있기 때문이다. 대지는 해안에 바로 면해 있어 平地이다. 일부 농촌개량주택은 출입구에 기둥을 세워 대문을 설치하였다. 앞·뒷마당은 오늘날 논이나 밭에서 탈곡한 벼나 잡곡 그리고 고추나 깨 등 농수확물의 건조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뒷마당은 식품저장을 위한 장독대 공간으로 활용되

고 있다. 남서향 배치일 경우 농촌개량주택은 안길 쪽에 면해 있어 앞마당이 좁고 뒷마당이 넓다. 남동향 배치일 경우 농촌개량주택은 대지 뒤쪽에 위치하여 뒷마당이 좁고 앞마당이 넓다. 따라서 농촌개량주택 뒤편은 남서향일 경우는 국도변에서 뒤편이 보이지 않으므로, 남동향일 경우는 안길에서 뒤편이 보이지 않으므로 뒤편에 각종 附屬舍를 설치하였다. 개량변소는 大·小便器 구분하여 마당 텃밭의 한쪽 구석에 설치하여 살림채와는 거리를 두었다.

평면형태는 15평내지 20평형 평면으로, 房數는 3개를 기본으로 하고, 경제력에 따라 방수가 4개, 5개로 증가된다. 前面 출입 마루를 중심으로 좌우 측에 안방과 건넌방의 공간을, 마루 뒷면에 부엌과 뒷방의 공간을 갖는 것이 보통이다. 현관이 없고, 연탄 아궁이 부엌에다 마루를 중심으로 방들이 배치되어 있다. 안방은 부엌과 인접되어 있고, 부엌과 안방 사이벽에 미단이창이 설치되어 음식을 담은 그릇이라든가 床이 오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이 지역의 평면은 마루 또는 거실을 중심으로 한 평면형태를 固守하면서 농촌개량주택에 필요한 여러 용도의 附屬舍 증축을 통해서 여러 종류의 공간이 존재하게 된다. 당초

12) 마을주민 김주호씨에 의하면, 7번 국도에 면해 있는 농가는 面事務所에서 다락층을 가진 서구식 박공지붕을 짓도록 권고했고, 도로에 직접 면하지 않은 농가는 주민 자율의사에 따라 합각이나 모임지붕으로 축조했다고 함. 조사결과 같은 시기에 축조되었음에도 다락층이 있는 서구식 박공지붕으로 지은 주택들은 지붕처마면이 높아 바람에 바로 맞닿게 되어 있는 관계로 태풍에 지붕이 날아가 기와를 다시 이은 집이 두 집(김홍목家, 황용출家)이고, 부분적으로 박공지붕을 다시 수리한 집도 많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주택을 지어야 함을 알려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13) 頻度數=構成家口/調査對象家口, 構成比率를 의미함.

부속사에 대한 고려 없이 살림채 하나에 방, 마루, 부엌 등 극소수의 기능을 가진 室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조사대상농가의 부속사 공간변화 총괄표

구분	거주가족수	대지면적(평)	살림채(A)면적(평)	부속사				부속사(B)면적(평)	A+B면적(평)	
				당초		증축				
				실명	면적(평)	실명	면적(평)			
S-1	3	150.0	27.06	T	0.95	C1, C2, S2, S3	Ba	9.27	10.22	37.28
S-2	5	65.0	24.26	T, S1	1.23	R4(S4), S3, H1	S2	6.55	7.78	32.04
S-3	2	158.2	34.34	T	1.15	H2, H3, S3, S4, T1, J(W)	S2	17.54	18.69	53.03
S-4	2	86.4	32.71	T	0.68	C1, S2		6.11	6.79	39.50
S-5	2	135.8	28.36	T	1.58	C1, C2, S3, S4, S5, S6, S7, H2, H3, H4, H5, H6		25.12	26.70	55.06
S-6	1	120.5	26.73	T	1.23	C1(S2), S1	C2	10.34	11.57	38.30
S-7	2	151.5	24.67	T	0.82	C1, C2, H1, H2, H3		14.06	14.88	39.55
S-8	7	92.7	23.38	T	1.36	C1, C2, C3, C4, S1, S3	S2	16.04	17.40	40.78
S-9	2	114.2	20.69		1.09	T, C1, S1, S2	C2	13.89	14.98	35.67
S-10	3	204.5	26.62	T	0.95	C1, S2		8.95	9.90	36.52
S-11	5	138.2	33.35	T	1.04	SR, H1, H2, C1(R6, R7, Bo), C2		14.07	15.11	48.46
S-12	3	168.2	37.45	T	2.54	H1, C1(R5)	S1	17.10	19.54	56.99
S-13	2	145.5	20.83	T	3.10	C1, S1, H1		5.48	8.58	29.41
S-14	5	149.1	35.18	T	0.95	Ba, Bo		2.55	3.50	38.68
S-15	4	225.5	19.06	T	1.27	SR, S1		6.77	8.04	27.10
S-16	7	133.9	37.50	T	1.09	Ss, K, S1, S2, C1(R6, R7, R8, R9, R10, R11, SR, Bo)		37.58	38.67	76.17
S-17	4	174.2	22.00	T	1.23	S1		6.15	7.38	29.38
S-18	3	151.5	34.17	T	0.44	C1(H1), C2(H2)		2.42	2.06	37.03
S-19	4	178.2	23.98	T	2.33	Ss, R5, R6, R7, R8, H1		34.11	36.44	60.42
S-20	2	186.9	38.71	T	1.59	Ss, Bo, S1, C1(R7, R8, R9)		20.52	22.11	60.82
S-21	1	98.9	32.92	T	1.45			0.00	1.45	34.37
S-22	3	118.5	47.33	T	1.23	R4, R5		5.35	6.58	53.91
S-23	2	177.7	33.41	T	1.80	C1, S1, S2, S3		20.78	22.58	55.99
S-24	1	149.9	30.16	T	2.23	S1, S2		6.83	9.06	39.22
S-25	2	117.7	28.57	T, S1	0.70	R5, S3, S4		12.27	12.97	41.54
평균	3.08	143.71	29.74		1.36			12.79	14.15	43.89

Rn : 방, Tn : 변소, Ba : 욕실, SR : 샤워실, TB : 화장실, Bo : 보일러실, M : 다용도실, Sn : 창고, Hn : 헛간, Cn : 축사, J : 젓간 W : 쓰레기소각장
 * ()안의 것은 변경된 용도임.
 ** 각 방의 명칭은 거주자가 정하는 대로 적었음.
 *** 살림채의 면적은 당초 도면보다 늘려지는 경우가 많아 똑같은 평면이라도 면적에 차이가 있음.

3. 부속사 공간의 변화 실태 및 분석

3.1 민박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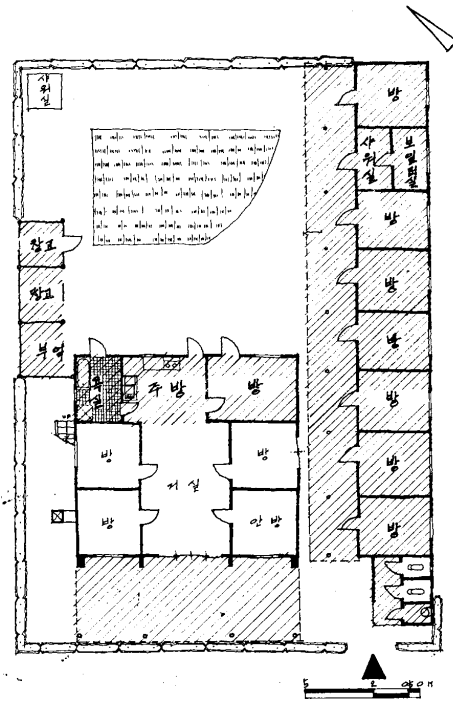


그림 1. 민박채 증축 사례(S-16)

(도면에서 벽체로 구현된 부분중 흰 부분은 축조 당시의 농촌개량주택이고, 빗금친 부분이 증축된 곳임.)

대부분 여름철 민박을 위하여 설치된 방들로 살림채와 떨어져 대부분 뒷마당에 別棟으로 증축(5/25, 20%)되어 여러 개의 방들로 구성되어 있고, 민박투숙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샤워실과 보일러실이 설치(2/25, 8%)되어 있다. 또한 피서객을 상대로 여름철에 설치되었다 철거되는 비닐로 된 가설간이숙소와 샤워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8/25, 32%)도 있다.

이와 같이 살림채와 민박채가 분리된 이유는, 피서객을 위한 민박을 운영하므로 관리의 편리성 측면 때문이고,入室料를 먼저 받으므로 서로 간의 사생활보호 측면에서 접촉을 적게 하고자 하

는 의도 때문이다. 비닐로 된 가설간이숙소와 샤워장은 설치비가 저렴하고, 설치해체가 용이하여 설치할 때 별도로 면사무소에 신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7번 국도가 확포장되고, 인접한 孟芳海水浴場과 草堂觀光地開發事業이 활성화된다면, 민박 방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어 증축을 하던가 타용도의 실을 개조·개수하여 민박용 방을 만드는 농가와 식당 등 보조적 상업을 겸하는 농가가 증가될 것이다.

3.2 화장실

주택내부에 양변기를 설치한 농가는 일부(4/25, 16%)에 불과하며, 설치된 농가도 하수관로가 없어 無用之物이다. 따라서 모든 농가의 옥외에 수거식 개량변소가 설치되어 있다.

변소의 변화 형태를 살펴보면, 첫째는, 지붕은 콘크리트 슬래브로, 벽은 시멘트블록이나 시멘트벽돌로 지은 개량변소이다. 이들 변소는 마당 한 쪽에 설치하되 두 칸 또는 세 칸으로 만들었는데, 두 칸일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大便器만을 설치하고, 세 칸일 경우에는 중앙에 小便器를 설치하고, 양쪽에 남·녀가 이용할 수 있는 대변기를 설치하였다. 위치도 변소에서 나오는 人糞을 거름¹⁴⁾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대지 경계에 주로 설치되어 있다. 둘째는, 당초 옥내 화장실을 설치(4/25, 16%)하였으나, 하수관로 未設로 양변기를 없애고 옥실로 변경한 경우(3/25, 12%)이다.

옥외 변소가 설치된 주된 이유는, 조사대상 지역이 低地帶이고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지 않는데서 오는 오수 처리 불능과 변소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관습, 정화조 설치비용의 과다, 인분을 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살림채 내에서 다른 실의 우선적 면적확대 요구, 용변시 냄새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다.

14) 조사대상가구중 농작업을 하기 힘든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농가에서 人糞을 거름으로 사용함.



사진 2. 두 칸 변소



사진 3. 세 칸 변소

면담조사시 욕실과 변소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답한 경우(9/12, 75%)가 많았다. 옥내욕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12/12, 100%)은 압도적인데 반해 옥내변소를 설치하여야 한다(5/12, 41.6%)는 의견은 적었다. 하수관로 설치와 排水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옥내변소든 옥외변소든 水洗式이어야 한다(11/12, 91.6%)는 의견이 많았고, 옥내화장실을 설치하겠다는 거주자들(10/12, 83.3%)이 많았다. 따라서 하수관로가 설치된다면, 옥외에 수세식변소와 개량식변소가 混在될 것이고, 옥내에는 욕실과 수세식변소가 구분 설치되든가 수세식화장실로 설치될 것이다. 또한 居住者들이 대부분 나이가 1세대로 허리가 좋지 않아 활동이 어렵거나, 고혈압 등 노인성 疾患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므로 坐便器보다 洋便器를 갖춘 화장실이 증가될 전망이다.

3.3 축사

농촌개량주택 중 가축을 키우는 농가는 일부이며, 가축 또한 소, 닭, 염소, 토끼정도이다. 그 수도 적어 전부 울안에 축사¹⁵⁾가 설치되어 있는데 영세하다.

살림채에 떨어져 설치되어 있는 마구의 공간 변화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농사목적으로 소를

15) 본 고에서 축사는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 만든 건물, 마구는 소를 기를 수 있도록 만든 건물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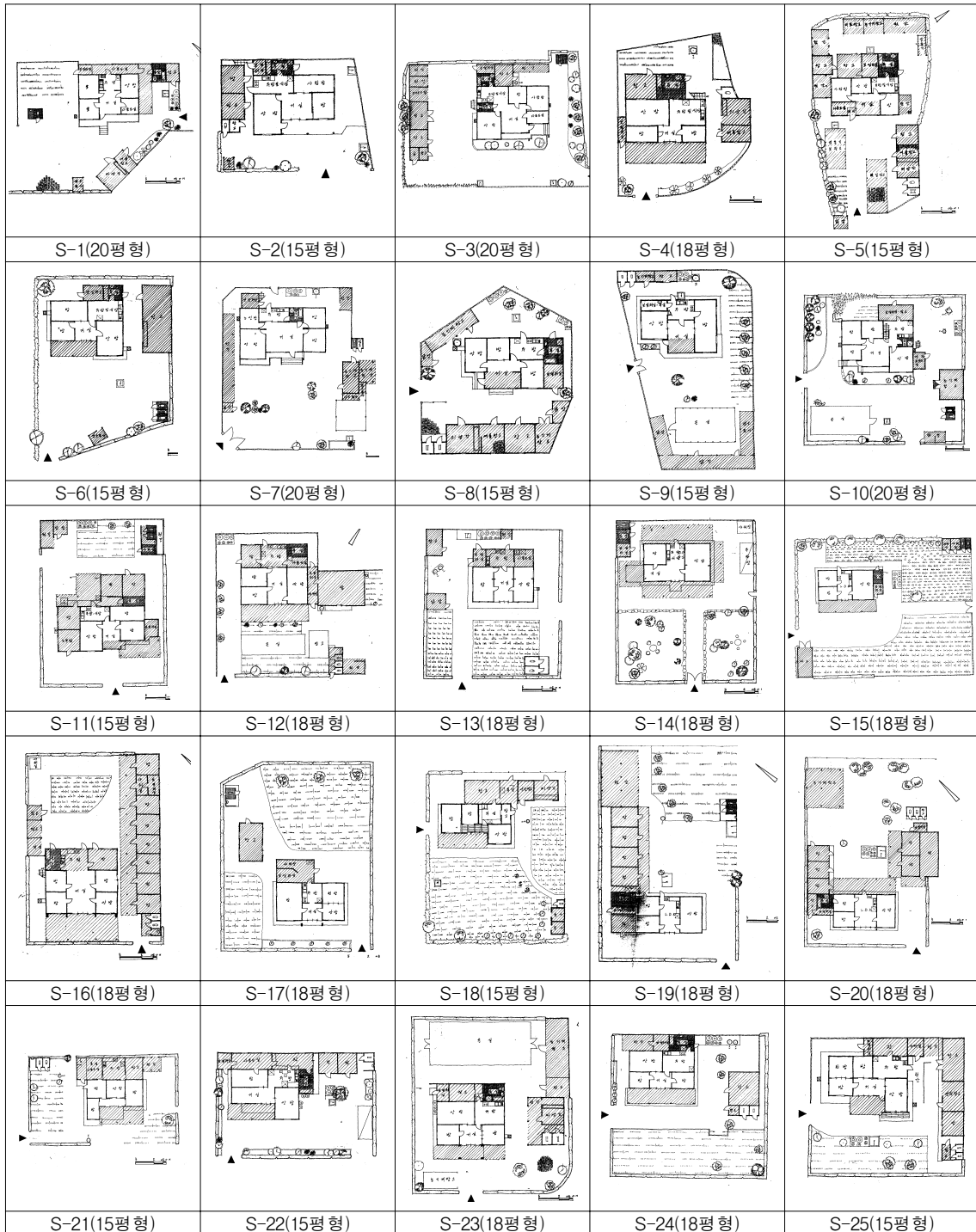


그림 2. 삼척해안지역 농촌개량주택 평면 및 증축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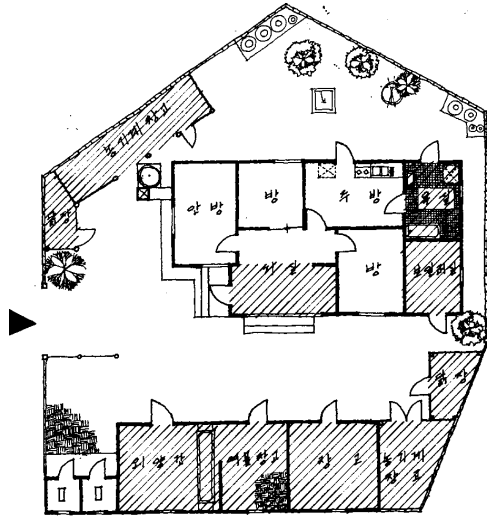


그림 3. 축사 증축 사례(S-8)

키웠으나(15/25, 60%), 오늘날 비육목적으로 한 두 마리를 키우는데, 키우는 농가는 두 집뿐이다¹⁶⁾. 규모 또한 한 칸 내지 두 칸 정도이다. 벽은 시멘트블록으로 축조하고, 지붕은 골스레트를 얹었다. 오늘날 비어있는 마구를 개조하여 민박 방으로 만든 농가(4/25, 16%)도 있고, 창고로 轉用하여 쓰고 있는 농가(2/25, 8%)도 있다. 바닥도 시멘트 몰탈로 勻配를 주어 거름더미 쪽으로 흘러가도록 하였으며, 바닥에 흡수성이 높은 톱밥이나 왕겨를 뿌려두었다가 牛糞을 치우므로 바닥이 예전과 달리 질퍽하지 않다.

소를 키우는 농가가 많이 줄어든 이유는, 농가에서의 소의 경제적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재산적 가치도 하락하고 있고, 노동력 의미도 농기계에 의해서 대체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거주자들 대부분 나이가 노인들이어서 소를 키우기가 힘에 벽차고, 또한 이 지역이 低地帶여서 장마철에 빗물이 잘 빠지지 않아 위생상 매우 나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가 내의 기존 마구는 민박용 방이나 창고 등

16) 실제로 소를 키우는 농가도 收益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벗짚을 소에게 먹여서 나오는 牛糞을 거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함.

다른 생활공간시설로 변화되었다. 시멘트블록과 골스레트로 축조한 이유는, 이들 재료가 시공에 편하고 다른 재료보다 값도 싸기 때문이다.

그 외에 염소우리(5/25, 20%)와 닭장(7/25, 28%)이 있는데, 염소우리의 벽은 시멘트 블록으로 축조하고 지붕은 골스레트로 이었고, 주위에 철망 울타리를 설치하여 그 안에 염소를 키우는데 10마리 정도의 소규모로 키운다. 대규모 닭장을 지어 養鷄를 하는 농가는 없고, 가장 많이 키우는 농가도 50마리 정도의 소규모다. 닭장의 前面은 그물망이나 철망으로 만들어 햇볕이 들게 하고 나머지 벽은 시멘트블록으로 축조하고, 지붕은 골스레트로 이었다.

이 지역은 비가 오면 침수되는 저지대이고, 해안에 바로 인접해 있어 대규모 축사 신축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소 한 두 마리를 키울 수 있는 마구와 피서객을 상대로 하는 염소와 닭 사육 등은 계속 유지될 것이므로 소규모 축사는 계속 존재할 것으로 여겨진다.

3.4 창고

창고의 용도는 크게 생활용 수납공간과 생산용 수납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창고는 주생활 방식의 변화, 영농방식의 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되는데, 생산용 수납공간인 창고의 공간변화를 살펴보면, 당초 살림채 내에 창고가 없다보니 대부분 건물 뒤편에 내어 달아 창고나 헛간으로 증축한 경우(11/25, 44%)와 살림채에서 떨어져 별동으로 설치된 경우(20/25, 80%)가 있는데, 살림채에 붙여 증축한 경우에는 가사작업 용도의 창고를, 떨어져 증축한 경우에는 농작업 용도의 창고가 많다.



사진 4. 농기계 창고

영농기계의 도입에 따라 부피가 큰 경운기 등 농기계가 눈비에 젖지 않도록 보관하기 위한 창고, 자전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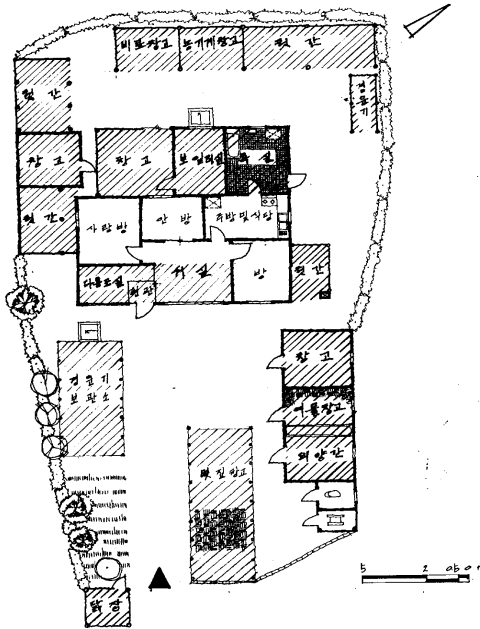


그림 4. 창고 증축 사례(S-5)

보관하기 위한 창고, 자동차를 보유하는 농가가 많아짐에 따라 설치되는 차고, 과거에는 유용하게 쓰였으나 지금은 별로 쓸모가 없는 물건을 보관하는 헛간, 비료나 농약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소먹이인 볏짚과 사료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 농기구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 재래식 나무 아궁이나 연탄아궁이 또는 연탄보일러로 난방을 하는 경우 장작이나 연탄을 보관하는 창고 등 그 용도가 다양한데 이들 창고들은 울안에 흩어져 축조되어 있다. 벽은 시멘트블록으로 쌓고, 지붕은 골스래트를 얹었다.

이와 같은 이유는, 각종 용도의 창고들이 주 생활방식의 변화와 영농방식의 변화에 따라 철거되거나 정리정돈 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다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살림채내의 방들도 가족수의 감소로 여유 방들이 생김에 따라 이들 방들을 생활용 수납공간인 창고로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수납공간이 부족했다¹⁷⁾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남은 방數가 많아

생활용 수납공간도 충분하고(18/25, 72%), 생산용 수납공간이 충분하다(20/25, 80%)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으로 이들 공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정리 정돈될 것이다.

3.5 문제점

대상지역의 농촌개량주택은 축조시 부속사 공간을 반영하지 않았던 관계로 미흡했던 부분들이 추가되거나 되고 있다. 특히 농촌주택개량시 관 주도의 하향적 추진체계에 의하여 부엌, 욕실, 변소 등에 중점을 두어 가구단위로 산발적으로 개량되어 왔다. 그 결과 부속사 부분을 제외한 주거 부분은 도시주택에 비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꾸준히 개량되어 왔다고 볼 수 있지만 도시주거 수준에는 아직도 미흡하다.

창고를 비롯한 각종 부속사는 대부분 노후화되어 있거나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으며, 구조 또한 인력과畜力으로 하던 가족농 형태의 재래 영농방식에 적합했던 소규모 구조이거나 자력으로 일기설기 맞추어 지은 불안정한 구조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여기저기 분산되어 지어진 건물들이다 보니 오늘날의 농업생산방식에는 쓸모가 거의 없는 것들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기존의 부속사들을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에서 피서객을 위한 민박채 등 상업시설들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이 되고 있어 옥외환경을 나쁘게 만들고 있다.

4. 結論

본 연구는 삼척 외곽 해안지역의 농촌개량주택을 대상으로 현재까지의 부속사 공간에 대한 변화과정을 통하여 그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통하여 농촌개량주택 부속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7) 최찬환, 농촌주택개량에 대한 주민의식구조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982. 2, 15쪽에서 상당한 부분의 농가에서 수납공간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고 함.

1)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건립된 농촌 개량주택으로, 축조시 사회경제적 사정 때문에 15~20평 소규모로 지어져 소득수준과 생활수준, 경제수준의 향상에 따른 생활공간의 확장요구 및 피서객을 상대로 운영하는 민박용 공간의 확장요구, 영농구조의 변화에 따른 수납공간의 확장요구로 부속사를 중심으로 한 농작업공간의 무질서한 증축이 거듭되어, 부속사는 당초 면적(1.36평)에서 약 10.4배(약 14.15평 : 표 2 참조)의 증축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처음부터 부속사 공간이 변소만의 소규모 공간으로 축조되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부족했던 각종 생활과 생산에 관련된 부속사 공간이 계속 늘어나 단순히 배설하는 공간에서 피서객을 위한 민박채와 가축사육을 위한 축사, 각종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생활용 및 생산용 수납공간 등을 축조하여 농촌개량주택 내의 공간기능이 복잡 다양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2) 농어촌 표준설계도서 작성시 새로운 주택만 설계하여 반영할 것이 아니라 부속사도 내부공간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농산물, 농기구, 농자재, 농기계, 생활용품의 창고를 한곳으로 모아 배치하되, 보관물품의 용도와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분리·통합하고 작은 물품은 입체적인 수납설비를 이용하여 공간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농촌개량주택 농가의 농업생산과 생활특성을 반영하여 살림채, 마당, 진입로와의 동선을 고려하여 생활에 관련된 부분은 살림채와 가까운 곳에, 농기계와 같이 농작업에 관련된 부분은 외부진입이 용이한 곳에, 민박채는 맹방해수욕장과 초당관광지개발사업이 활성화된다면, 농업과 피서객을 상대로 하는 관광업의 생업형태가 공존할 것이므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살림채와 떨어져 마당 한쪽에 배치하는 등 기존 농촌개량주택의 특성에 맞도록 여러 가지 모델로 개발하여 배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화장실의 경우, 이를 실내화하려는 경향이 엿보이지만 人糞을 거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과 정화조 설치비용 과다, 주거문화에서 위생시설에 대한 의식수준의 낙후, 농작업중 옥내화장실 이용의 번거로운 점, 특히 低地帶여서 이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의 어려움 등 이와 같은 이유로 수세식 화장실의 설치를 어렵게 만들고 있고, 또한 이에 부속된 욕조와 세면기, 변기는 아직까지 제대로 보급되지 않는 등 현대화에 대한 주생활의 변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으나 면담조사시 하수관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옥내화장실을 설치하겠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장차 주택내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되 현재 농촌 거주자 대부분이 노인인 관계로 노인형 주거의 개념을 도입하여 접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강영환, 한국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1994
2. 양희수, 한국농촌의 취락구조,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71
3. 이재우, 농가주택, 건우사, 1998
4. 진경배, 농촌주택의 건축계획적 연구, 1970.12
5. 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5권, 1996
6. 최찬환, 한국의 농촌과 도시주거양식의 비교 연구, 연세대박론, 1986
7. 최찬환, 농촌주택개발에 대한 주민의식구조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982. 2
8. 최장순·최찬환, 주생활방식 변화에 따른 농촌주택의 공간변용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999. 2
9. 최장순·최찬환, 강원영동지역 민가의 주거공간 변화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9. 8
10. 최장순·최찬환, 농촌개량주택의 주거공간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9.11